

2011 7·8월호 제432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화학적합성품 카제이나트륨이 든

프림이 아기 들의 선택이죠?

프림 속 **화학적합성품 카제이나트륨** 대신
무지방 우유를 넣은 「**프렌치카페카페믹스**」!

나와 내 가족이 마실 커피니까!
모를땐 그냥 먹었지만, 프림을 알면 바꿔야죠.

건강한 선택: 우유가 몸에 좋다는 건 상식이죠?
그래서 우유 맛 내는 프림 속 **화학적합성품 카제이나트륨** 대신
진짜로 우유를 넣었습니다.

맛있는 선택: 화학적합성품 카제이나트륨이 든 기존 모카믹스,
마신 후 입이 텅텅해서 싫으셨죠?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는
무지방 우유를 넣어 맛이 더 부드럽고 뒷맛까지 깔끔합니다.



프림까지 좋아야
내 땀에, 내 입에 **관관관**~



아라비카 원두 100%
「골드라벨」

아이스커피도 프림을 따지면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아이스」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주부교실 7·8월호

발행일 : 2011. 8.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안명수
편집인 : 박인래
담당 : 원혜진, 김보희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A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해럴드미디어
대표 박행환

비매품

주부교실

2011 7·8
통권 제432호

생각해봅시다	4	알면 도움되는 '금융분쟁 조정제도' / 정수경
의식조사	6	여성노인 36.4% 노후대책 없고, 일자리 찾기 어려워 / 본회 충청남도본부
	8	소비자 2명 중 1명 '가격표시제' 모르고 있어 / 본회 울산광역시지부
고발사례	10	소비자의 소리 / 김영란
회원활동	12	필리핀 톤도를 다녀와서 / 민정희
	14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를 다녀와서 / 최정례
	16	식품의약품안전청 안방체험기 / 박상순
	18	나의 영혼을 맡게 해주는 노래 / 기정순
	20	박달재 LPC를 다녀와서 / 박영희
지부소식	22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시판	34	제78기 주부대학 신입생 모집 및 18기 주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알면 도움되는 ‘금융분쟁 조정제도’

정수경 / 본회 부회장, 변호사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 위원으로서 회원 여러분께서 금융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노크해야 하는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금융분쟁조정제도와 법원의 재판 제도간의 차이와 특성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의 가장 큰 강점은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원은 관계 당사자 간에 합의를 권고하고, 30일이 지나도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제가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보험 분쟁의 경우를 보면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을 함께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정

위원 중 최소 2명은 법의학에 해박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원로급 의사선생님께서 출석하시고 2명 또는 3명 정도의 변호사가 함께 출석합니다.

그 외에 보험단체가 추천한 사람과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조정위원으로 출석하고,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으로 되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이 실무적 도움을 줍니다.

분쟁조정제도가 법원의 재판보다 신속한 것은 위와 같은 조정위원 구성 방식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서 관계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와 증거 조사 등 사전 점검절차를 거친 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위원들은 다른 조정위원들을 상대로 상호 질문과 의견교환을 하여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정 지은 후에 법률적 입장

정리를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분쟁조정 대상으로 된 것이 하나의 건인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 약관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였다거나 불명료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관련 약관 자체의 개정까지 권고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 보험단체 추천 조정위원들이 긴장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불합리한 약관이 장기간 사용되었던 사례에서는 위원회가 의결한 조정안으로 피해구제를 해주어야 하는 대상자와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보험단체 추천위원들은 보험법제도를 규율하는 많은 이론들을 제시해가면서 보험단체를 옹호하는 활동을 펴는 경향이 많고, 소비자단체를 대변하는 조정위원은 그에 상응하여 반대 대항논리를 제시해가면서 소비자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입니다.

위원회가 의결한 조정안을 쌍방 당사자가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 즉,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지만, 조정신청사건의 처리 도중에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조정처리 절차는 거기서 중지되며 이후의 절차는 법원이 관장하게 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쌍방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사례의 경우 조정수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화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게 될 것입니다.

“금융분쟁조정신청에 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한 조정안을 금융회사들이 수용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언론보도(ChonsunBiz, 2011. 7. 20.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들보다 금융회사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점차 많이 내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반면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응이 느리다는 불만을 털어놓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ChonsunBiz, 2011. 7. 20.자)은 금융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험 분쟁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시킬 경우, 쌍방 당사자의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절차적 요청으로 사건 종결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의학감정과 손해감정을 병행해야 하며, 변호사 보수 이외에 감정신청서작성에 의학적 소양을 갖춘 자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법률서비스 비용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했던 조정안에 법의학적 의견이 담겨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감정절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성노인 36.4% 노후대책 없고, 일자리 찾기 어려워

- 충남지역 55세 이상 여성노인 500명 대상 -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지만 노인의 사회적 역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등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본회 충청남도지부는 충남지역 55세 이상 여성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 및 사회참여 실태를 파악해 여성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다음은 의식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여성노인 36.4% 노후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어

먼저 여성노인의 주 수입원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30.4%로 가장 높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2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 17.8%, ‘사적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이 14.6%, ‘저축, 증권배당’ 5.8%, ‘기타’ 3.6%의 수입으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노인들의 노후 대책 마련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노인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33.4%, ‘주택소유(부동산구입)’ 11.2%,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8.2%, ‘저축’ 5.6%, ‘사적연금(은행, 보험회사 등)’ 5.4%의 순으로 노후대책이 없는 여성노인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 1> 노후대책 마련 방법

구 분	응답자(%)
특별한 대책 없음	36.4
기타	33.2
주택소유(부동산구입)	11.2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8.2
저축	5.6
사적연금(은행, 보험회사 등)	5.4
계	100

◆ 국가적 차원의 노후 지원 및 자식에게 부양받는 삶 원해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 35.6%, ‘스스로 마련’ 29%, ‘가족, 자녀들이 마련’ 24.4%, ‘기타’ 11%순으로 나타나 국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희망하는 노후 삶의 형태<표2 참조>를 조사한 결과 ‘자식과 떨어져 살면서 부양받는 삶’ 38.2%, ‘자식과 함께 살면서 부양받는 삶’ 35.2%로 자식들에게 부양받는 삶을 원하는 응답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식 도움 없이 사는 삶’은 23%, ‘기타’ 3.6% 순으로 조사됐다.

<표2> 희망하는 노후 삶의 형태

구 분	응답자(%)
지식과 떨어져 살면서 부양받는 삶	38.2
지식과 함께 살면서 부양받는 삶	35.2
지식의 도움 없이 사는 삶	23
기타	3.6
계	100

◆ 여성노인 53.5% ‘나이’는 취업 장애 요소라 생각해

일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아서’ 53.5%라고 생각하는 여성노인이 과반수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았던 응답은 ‘근로수준(임금, 근로시간, 거리 등)이 맞지 않아서’ 19.4%, ‘원만한 일이 없어서’ 14.2%, ‘희망분야에 취업 불가능’ 12.9% 순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여성노인이 나이가 취업의 장애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참조>

<표3> 취업 되지 않는 이유

구 분	응답자(%)
나이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함	53.5
근로수준이 맞지 않음	19.4
원만한 일이 없음	14.2
희망 취업분야에 취업이 불가능함	12.9
기타	-
계	100

◆ 결론

조사결과 노후대책 없는 여성노인이 10명 중 4명으로 나타났고, 일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를 과반수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사회 여성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참여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노인 10명 중 4명이 국가적 차원의 노후보장을 원하고 있었으며, 10명 중 7명꼴로 자식에게 부양받는 삶을 원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노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여성노인들의 준비된 노후,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자립, 솔선참여 할 수 있는 여성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정책 및 여성노인들의 입장과 삶이 반영된 현실적 노인복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본회 충청남도지부>

소비자 2명 중 1명 '가격표시제' 모르고 있어

- 울산시민 500명 대상 '가격표시제' 의식조사 결과 -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가격표시제'로 '판매가격표시제'와 '단위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회 울산광역시지부에서는 지난 5월 19일 ~21일 울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해 관련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다음은 의식조사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낮아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0.6%만이 '판매가격표시제(open price)'를 알고 있었다.

특히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확대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8%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업주부로 조사되었다.

'가격표시제'를 알게 된 경로로는 '신문, 방송을 통해서' 67.2%가 가장 높았으며, '판매업자의 설명을 통해' 11.8%, '주변 이웃들을 통해' 9.5%, '홍보 전단' 7.9%, '반사회 홍보를 통해' 3.6%로 조사돼 10명 중 7명이 언론매체를 통해 '가격표시제'를 알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의류 및 가전제품 판매가격'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가장 낮아

판매가격에 대한 신뢰도는 '대형할인점' 65.2%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 백화점 65%, '전문상가' 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소매점' 71%, '대리점' 50.2%은 가격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시된 판매가격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제품으로는 '의류제품'이 23.4%로 가격 신뢰도가 가장 낮았고, '가전제품' 21.5%, '식품·잡화 등 생필품'이 18.8%, '시계·금속' 17.3%, '가구' 14.9%, '컴퓨터 관련제품'이 2.7%, '헬스기구' 1.4%순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판매 표시가격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판매업소 간의 가격차이로 인해 신뢰하지 않는다' 30.6%, '표시된 가격이 너무 비싸 폭리를

<표 1> 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제품

구분	빈도(%)
의류제품	23.4
가전제품	21.5
식품, 잡화 등 생필품	18.8
가구	14.9
손목시계, 귀금속	17.3
컴퓨터 및 관련제품	2.7
헬스기구	1.4
합계	100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28.4%, '표시가격의 변동이 심해서' 22%, '판매직원이 먼저 가격할인 제의나 흥정을 해서' 18%로 조사되었다.

◆ 정직한 가격표시와 정부의 감시강화가 필요해

판매가격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정직하게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가격 표시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 감시가 필요하다' 27.6%,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한

<표 2> 판매가격 표시제 정착을 위한 노력

구분	빈도(%)
판매업자가 정직하게 가격표시	35.6
행정기관의 단속, 감시	27.6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	24.2
서로 믿는 환경조성	12.2
기타	0.4
합계	100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 24.2%, '소비자와 판매자가 가격에 대해 믿는 환경조성'이 12.2%로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또 단위가격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8.2%,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31.2%,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보완' 20.6%,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가 10%로 조사되었다. <표2 참조>

◆ 결론

조사결과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가격신뢰도는 높은 편이지만 일반소매점은 상대적으로 낮아 판매자의 양심적 가격표시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격표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판매자의 자율적 가격 표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 단체도 가격표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개하여 건전한 소비행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판매자들에 대한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책차원의 계도가 강화될 필요성을 보여주었으며, 아울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소비자행동도 병행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본회 울산광역시지부>

소비자의 소리

해외여행 취소시 부당한 위약금 요구해

사례 지난 6월13일 가족 3인의 유럽여행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서 8월9일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1인당 30만원씩 90만원을 계약금으로 결제했다. 예약 다음날 계획이 변경되어 예약 취소를 하려고 하니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는 아직 항공권이 발권되지 않은 상태이고 출발일도 1개월 20일정도 남은 상태에서 위약금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본회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전액 환급이 가능함을 여행사에 전달해 소비자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해외 여행상품 예약 시 환불불가 특약이 미리 기재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외국계 여행사의 경우 인터넷 예약 시 환불불가 상품에 대해 외국어로 기재해 국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표시된 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약정 끝난 TV, 인터넷 결합상품 위약금 부당 청구해

사례 소비자는 SK브로드밴드의 TV, 인터넷 결합상품을 3년 약정가입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를 해왔다. 약정기간이 지난 1월, TV만 해지 했는데 지난 5월 통장내역에 위약금으로 9만원이 자동이체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약정기간이 지난 후 자동 기간연장이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함을 업체에 통보하여 부당 청구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는 것으로 처리했다.

인터넷몰에서 구입한 미세전류 흐르는 노트북 환불 거부해

사례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매했다. 구입한지 3일 후 사용 중 미세전류가 흘러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해당 모델은 특정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미세전류가 흐르는 것이며, 미세전류는 접지용 콘텐서를 설치하

면 차단되는 부분이라고 해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 소비자의 집은 지은 지 오래되어 접지를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사용지역에서 콘텐서가 설치되지 않아 환불이 안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본회는 업체에 해당 모델에 대한 미세전류 흐름 확인요청을 했고 업체 측은 미세전류는 접지용 콘텐서를 설치하면 차단이 가능하며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을 위해 기사가 소비자의 집을 방문했고, 점검결과 소비자의 집은 지은 지 오래되어 접지용 콘텐서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업체는 소비자의 요구대로 노트북 구매가를 환불해주기로 하여 카드 결제한 155만원을 취소 처리했다.

이물질이 걸러지지 않는 정수기, 약정기간 내 위약금 없이 해약 요구해

사례 소비자는 렌탈 정수기를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정수기를 설치한지 20일이 지나지 않아 정수기 물에서 이물질이 계속 나왔고 기사가 방문해 정수기에서 발생한 이물질임을 확인했다. 정수기의 물을 마신 소비자의 가족이 장염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아 신체적 피해가 있었고, 특히 소비자의 경우는 임신 중이어서 정수기에 대한 불신으로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없었다. 소비자는 약정기간이 있으나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를 원해 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본회는 정수기 렌탈업체에 정수기 기

능의 하자로 인해 이물질이 나오고 소비자가 신체피해를 입은 상황을 통보해 약정기간 이내 이나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하도록 요구했고, 업체는 위약금 없이 렌탈정수기에 대한 해약처리 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약정기간 내 특정채널 중단시키는 업체의 위약금 부당 청구

사례 소비자는 지난 2009년 3월 자녀의 영어 공부 용도로 디즈니채널을 시청하기 위해 스카이라이프의 다중채널방송을 3년 약정으로 가입을 했다. 2년 4개월 정도 시청 중 갑자기 디즈니채널이 중단되어서 업체에 확인해보니, 해당 채널을 보려면 다시 3년 약정으로 HD수신모뎀을 교환 설치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한다. 재약정 시 자녀가 중학생이 되어 디즈니 채널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해지를 원하자 업체 측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소비자는 채널이 중단됨에 따른 사전 고지도 없었고,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데도 위약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본회에 문의를 해왔다.

처리 본회는 해당 업체와 통화해 약정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일방적 채널 중단은 업체의 귀책사유임을 알리고 전월인 7월의 시청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약금 없이 소비자가 가입했던 다중채널방송을 해지 처리해 8월부터는 TV시청료만 납부하도록 종결처리 했다.

〈김영란/ 중앙회 소비자상담실장〉



필리핀 톤도를 다녀와서

민정희 / 주부교실중앙회 운영위원회 회장

지난 6월 14일~19일 필리핀탐방과 나눔봉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모니터, 회원 등 20명은 늦은 시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천에서 4시간이 걸려 도착한 필리핀 공항에는 현지 가이드가 마중 나와 있었고, 깜깜한 밤이 되어서 야 센추리팍 호텔에 짐을 풀었다.

이튿날 현지 한인목사님과 함께 나눔봉사를 나갈 수 있었다. 한국에서 준비해간 과자와 의류 등을 가지고 찾아간 곳은 필리핀 마닐라의 중심가를 지나 차로 30분 정도 가면 나오는 도심지역으로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세계 3대 빈민가 중 하나다. 톤도 지역을 가로지르는 블랙리버는 말 그대로 온갖 폐수로 인하여 진한 검은색의 물로 덮인 강과 쓰레기로 만들어진 산인 스모키마운틴이 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폐품수집자라 불리는 빈민들로 오물로 가득한 하천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쓰레기를 줍거나 솥을 만들어 팔아 생활한다. 준비해간 물품들을 나눠주려 하자 부족 할 정도로 사

람들이 몰려들었다. 과자 한 조각에도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이들과 중고의류지만 그것을 받아 들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조금 더 준비해 오지 못한 아쉬움이 들었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건을 나눠 주는 것만이 아닌 실질적인 봉사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은 여성단체인 필리핀 한국부인회와 간담회가 있었다. 필리핀 한국부인회는 2009년도 기혼자만 가입하던 모임에서 벗어나 현재는 필리핀 내 모든 한국여성이 함께하는 모임이 되었고 필리핀 유학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과 회원들에게 문화강좌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필리핀 한국부인회의 여성의 권익향상과 교민화합의 일선에서 봉사와 사랑을 전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넷째와 다섯째 날은 현지자연경관과 도심지 등을 탐방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따가이파이’라는 활화산이었다.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인 시내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데 따가이파이는 마닐라와 전혀 다른 색깔과 향기를 지니고 있었다.

‘딱그산한 폭포(Pagsanjan Falls)’는 계곡이 지리적으로 짧지만 3개의 주를 거쳐 있다고 한다. 이곳에선 배의 앞뒤로 두 사공이 노를 젓고, 발을 디디며, 바윗돌을 차가며 조절하는 배에 탑승해 울창한 계곡을 올라간다. 뗏목에 옮겨타 떨어지는 폭포를 맞으면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도착지인 ‘88온천’은 벤치와 바위, 계단 등 조경이 잘 조성되어있어 온천장에서 수영을 하고, 몸을 담그고만 있어도 혈액순환이 되는 기분이었다.



이곳은 기타와 악기의 공연소리, 크고 작은 무대가 곳곳에 조성되어있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와 안마시설, 식당을 두고 있었다. 특히, 이곳

야외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국가요인 ‘만남’, ‘사랑의 미로’, ‘사랑을 위하여’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다.

아시아 유일의 카톨릭 국가이자 말레이시아계, 중국계, 미국과 스페인의 혼혈체인 ‘메스티조’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가 어루어진 곳이라 강한 인상을 준 필리핀. 섬이 많은 나라라서 그런지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를 함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필리핀에서의 5일은 많은 경험과 생각, 추억을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를 다녀와서...

최 정례 / 서울시지부 강북구 지회장

지난 7월 12일 오전 8시 성신여대입구역에서 김금희 성북구지회장을 만나 지하철을 갈아타며 신월동 버스정류장 내리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잠시 건물 처마 밑에서 10분정도 비를 피해 있었지만 비가 그치지 않아 폭우 속을 걸어 흠뻑 젖은 상태로 복지관에 도착했다.

자원봉사 담당자로부터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들은 뒤 주부교실중앙회 서울시지회 봉사팀 7명 중인 나는 윤모근 관악구지회장, 양석금 종로구지회장, 박상순 강서구지회장과 함께 주방봉사로 배정되었다. 한미옥 서초구지회장과 김금희 회장은 데이케어센터로 유춘식 부장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배정되었다.

주방봉사는 어르신 중식제공 및 도시락, 밑반찬 준비 및 배식, 정리 등을 주로 담당하여 하루 200인분 가량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한다. 반찬은 카레와 고등어구이, 오징어무침, 김치와 찰떡파이 1개가 준비되었다. 주방의 열기와 주부교실중앙회 조끼를 입은 위에 비닐로 된

앞치마를 돌렸으며 더위로 인해 땀으로 샤워를 해 눈이 따갑고 쓰라렸다.

모든 식사 준비를 끝내고 일부는 40인분의 도시락배달을 나갔고 정각 12시에 배식이 시작되었다.

나는 카레를 식판에 담는 일을 맡았다. 1차 식사는 복지관 인근의 저소득층 어르신 100분이 먼저 식사를 했다. 이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지관으로 오셔서 식사를 하고, 토요일은 집으로 도시락 배달을 해준다고 한다. 2차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가족, 3차는 80여명의 직원과 봉사자들이 식사를 한다고 한다.

카레를 식판에 한 분 한 분 떠 드리면서 각자의 얼굴모양이 내 눈 안에 들어왔다. 둥근 얼굴, 납죽한 얼굴, 가름한 얼굴, 네모난 얼굴 등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소 교실에 들어갔을 때 만난 세모난 얼굴의 밝은 표정과 인사성을 가지고 친절하게 늘 웃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청년은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가장 기억에 남아 있다.

점통더위 속에서도 입은 옷이 다 젖도록 땀을 흘리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윤모근 회장님은 가스불 앞에서 생선을 굽느라 더 더웠을 텐데 이것이 사랑의 힘이 아니라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주방위생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는지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갖다 놓으면서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돌아가시는 그분들의 얼굴표정은 행복이 가득한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

우리 팀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각자 자신이 한 봉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이케어센터에서는 음악치료에 참여해 치매어르신들과 노래와 춤도 추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장애인주간보호소에서는 '한글인지 프로그램' 보조와 일상생활훈련인 '손톱깎이 훈련보조'를 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주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면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식사를 하고 난 후 설거지와 주방 청소를 하고 나니 오후 2시가 되었다.

봉사를 마치고 복지관을 나오면서 복지관으로 올 때 느끼지 못했던, '이곳은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뿌듯해졌다. 우리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



진다면 이분들이 더욱 평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가, 작은 일이라도 남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만족이고 내 즐거움이구나' 하는 생각과 하나를 주고 둘을 얻은 기쁨으로 가슴은 뿌듯하였다.

행복과 축복 사랑이 가득한 이곳!

한빛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우리 모두 다시 봉사를 와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도 멎어 돌아가는 길은 발걸음마저도 상쾌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안방체험기

박상순 / 서울시지부 강서구 지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방문프로그램인 「식품의약품안전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 유춘식 교육부장, 서울시지회장, 회원 등 25명과 함께 충북 청원에 위치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였다.

먼저 모니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심이 많던 차에 식약청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되어 기뻐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넓고 건물 외관도 아름다웠다. 우리는 식약청 홍보 영상을 관람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활동에대한 강의를 들었다. 식약청은 식품의약품등의 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의 제·개정과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프로그램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내정되어 있었으나 같이 간 중앙회 회원들이 주부인 점을 감안, 화장품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아 화장품에 대한 오해와 이해로 주제를 바꾸어 최상숙 화장품 심사과장님으로부터 강의를 듣게 되었다.

먼저 피부노화예방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습관적으로 바르는 것이 광노화(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노화현상)를 예방하는 방법이며, PA와 SPF 지수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자외선A와 자외선B 모두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자외선B의 차단효과는 자외선차단지수인 SPF로 표기하고 자외선A의 차단효과는 자외선A차단 등급인 PA로 나타낸다. SPF의 숫자가 높을수록, PA의 +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크며, 또한 얼



굴, 손, 몸을 씻은 후에는 즉시 피부보습제를 발라 수분손실을 예방하고 항산화제(비타민 C,E) 등을 복용, 흡연을 삼가고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피부노화를 방지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점심식사는 식약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다. 식당은 넓고 깨끗할 뿐 아니라 채광이 밝아 더 위생적으로 보였다.

다음은 실험실 견학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모두 흰 가운과 모자를 쓰고 실험실에 들어서니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우리 조는 먼저 마스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에 대한 실험에 참가 했다.

호흡기를 보호하는 마스크(mask)에 대한 궁금증과 마스크 종류, 용도,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실습도 했다.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때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스크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찬 공기가 직접 입과 코에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숨을 쉴 때 공기 중의 유해한 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도 한다.

마스크의 종류는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서 관리되는 일반공산품인 방한대, 노동부에서 관리되는 산업용 방진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외품으로 관리되는 마스크가 있다. 국내 마스크의 대표 등급은 KF(Korea Filter)이며, KF80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사용하면 80% 이상의 먼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식



약청 인증마크가 되어 있는 마스크를 갖고 실험해 본 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황사용 마스크보다 불순물이 많이 걸러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우리가 마스크를 구입 할 때는 식약청 인증마크가 있는 것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알게 되었다.

다음에는 화장품연구팀 실험실 견학이 있었다. 먼저 샘플로 두 개의 화장품을 선정해 한 개씩 시험관에 화장품을 넣고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두 번 다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통되는 국산화장품에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끝으로 음성에 있는 풀무원 두부공장을 견학한 뒤 귀로에 올랐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늘 견학한 내용이 머리에 꽂 찬 것같아 마음이 뿌듯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마련해 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주부교실중앙회에 감사를 드린다. ■



나의 영혼을 맑게 해 주는 노래

기정순 / 본회 합창단 소프라노 파트장



매주 월요일, 나의 발걸음은 의무감처럼 충무로에 있는 중앙회 합창단으로 향한다. 지난 20년 하고도 몇 년, 학창시절부터 방송곡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좋아하던 음악을 결혼과 동시에 접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흔 살이 다되어 노래할 곳을 찾던 도중 이웃에 오랫동안 같이 사시던 중앙회 추혜옥 이사님의 권유로 이곳 합창단에 들어왔다.

그동안 아이들의 유학과 결혼 그리고 부모님과의 이별 등으로 공백기도 있었지만 선생님과 전 단원들의 해외 연주회 여행, 해마다 있는 중앙회의 행사를 위한 연습을 보람으로 여기며 지내왔다.

국립극장대극장과 교육문화회관에서 2년마다 합창단원들의 발표연주회를 열 때마다 있었던 선생님과 합숙훈련, 가사를 외우느라 온 힘을 쏟았던 단원들, 이 모든 기쁨은 주부 합창단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 아닐 수 없다.

연주회마다 찬조출연을 해주던 전문직 협조 합창단원들의 기세에 주눅 들지 않고 불렀던 아름다운 노래, 그 노래와 더불어 나의 인생의 중·노년기를 이곳에서 보내고 있으며 중앙회에 소속되어있는 여러 단체들의 협조, 역대로 내려오고 있는 단장님들의 희생, 임원님들의 노력, 단원들의 협조, 훌륭하신 선생님과 반주자 이 모든분들의 노고가 지금의 합창단이 지속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그동안 여러 취미생활을 해 보았는데 서예, 한국 춤, 팝송, 성가대, 지금 나오고 있는 합창단. 그 중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노래는 마음을 맑게 해주는 합창단 활동은 중심이 되어 내 인생을 보랏빛으로 만들어주었다.

노래를 좋아하는 나는 부부동반 모임이나 친척들의 행사 등 합창단에서 배운 노래를 자신감과 가사 전달 감성표현으로 대담하게 노래를 부른다. 집에서도 혼자서 감성에 젖어있을 때 차 한 잔의 여유와 마음껏 노래를 부르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낀다. 아무래도 나의 오랜 세월 합창단원으로 있으면서 자신감을 갖게 한 듯하다.

또한 중앙회 합창단은 매주 모여 꾸준히 발성연습을 해온 결과 60, 70세의 중장년층이 되어도 건강한 폐활량과 목소리가 다듬어짐은 물론 어떠한 음도 소화할 수가 있게 되었다.

또한 가곡, 가요, 동요, 외국가곡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단원들 개인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어 단원들 간의 친목 또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어져 가고 있다.

오랫동안 변함없는 지휘자님의 수업 분위기는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고

있으며 반주가 선생님의 빈틈없는 훌륭한 반주는 세월이 흘러도 항상 감탄할 만하다.

이제는 인생의 후반에 들어선 단원들은 합창과 함께 만남의 즐거움으로 매주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중에 하늘나라에 가신 단원들과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단원들도 오랜 세월이 흐르다보니 그리워짐을 느낀다.

지금도 단원들은 연말에 있을 연주회를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열심히 노래 연습중이다. 모든 열정을 다해 한 곡 한 곡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몸과 마음으로 합창을 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감사해하며 나올 수 있는 그날까지 종점이 없는 단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합창단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합창단원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나 반성도 하고 열정이 식지 않는 단원이 되기를 나 자신에게 다짐도 해본다. ■





박달재 LPC를 다녀와서...

박영희 / 주부대학 77기 총무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우리 77기 주부대학 회원들은 수업 듣는 즐거움과 '오늘은 또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까' 하는 기대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아침 일찍 문을 나서 강의실로 향한다.

지난 6월 13일 있었던 건국대 수의학과 최농훈 교수의 '축산물 안전 관리 제도 홍보를 위한 소비자교육'이라는 강의 중 교수님께서 위생적이고 깨끗한 도축장 견학에 대한 정보를 주시어 견학을 갈 수 있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열악한 시설의 목장과 도축장이 많다는 말씀에 걱정이 되었지만,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에 안심할 수 있었다.

장마철이라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박달재 도축장에 견학을 가기로 한 날은 야외에 돌아다니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 할 도축장이라 기대도 되고 마음이 설레었다.

박달재 LPC(축산물 종합 처리장)에 도착하

니 생각보다 건물이 아담해 보였다. 깨끗하고 청결한 건물 안으로 올라가 보니 우리를 위해 간단한 음료와 다과까지 준비해 놓은 회사 측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박달재 LPC 동영상 설명을 통해 완벽한 위생처리로 우리나라에서도 까다로운 HACCP인증을 받아 수시검사를 의무화 했고 백화점, 마트 외에도 까다로운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만큼 소비자로서는 안심하고 믿고 먹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구제역이나 브루셀라 등 전염병의 우려가 있어 직접 소, 돼지를 잡는 도축과정을 견학할 수는 없었으나, 회사에서 준비한 동영상으로 소, 돼지가 차로 실려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축되는지 볼 수 있었다.

소의 도축 공정을 간단히 나열하면, 한우입고(소 이력제관리)-계류-유도-타격 후 신경차단-목동맥절단-현수방혈-머리·목절단-가슴절개-예박공정(가죽반정도 벗김)-1차세척-박피-내장적출-백내장, 적내장검사-2분체작

업-최종세척-중량체크-예냉실입고-등급판정(익일) 순으로 도축된다. 77기 회원 중 한명은 사진을 보며 나직하게 혀를 찹찹 차시며 불쌍하다고 하시니 역시 직접 보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다.

돼지 도축 공정도 비슷하나 털 제거 작업상 세척 횟수가 총 5회나 되었다. 소·돼지를 도축하여 해체하는 사진과 설명이 차례 차례 나오고 뒤로 갈수록 드디어 우리의 눈에 익은 고기의 모습이 되었다.

도축 후 소·돼지 가공 공정은 등급판정 후-4분체(돼지는 3분체)작업-부위별 발골-진공 필름포장 후 X-RAY투시기 통과-열수축-냉각처리-검품공정-금속검출기통과-2차박스포장-라벨·테이핑처리-보관실이송-부위별적재-냉장/냉동보관 순으로 철저한 가공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설명을 다 듣고 난 뒤 직접 해체작업장에서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부위별로 해체되는 고기를 볼 수 있었다. 위생적 환경에서 해체된 고기를 보니, 소나 돼지의 모습을 알아 볼 수 없어선지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도축장에서는 일체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다음 코스는 박달재 도축장에서 납품하는 영월 다하누촌을 방문했다. 점심을 먹은 후 각자 회원님들이 필요한 만큼 한우를 구매해 버스에 싣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뿌듯해 졌다. 역시 주부교실의 회원인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인근 영월의 선암마을에 들러 한반도지형이라는 강과 숲을 보니 우리나라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회원들과 훨씬 더 친밀해짐을 느낄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서로 오랜 친구들인 양 다정한 대화로 잠잘 틈 없이 대화를 나누며 내내 행복이 감도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우리 77기 회원님들이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며 주부교실중앙회에서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받쳐주시는 직원분들에게도 행운을 빈다. ■

서울특별시지부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 토론회

시지부(회장 안명수)는 지난 8월 18일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식품안전과 식품가격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본회 회장의 개회사와 오일근 한국인정원 원장의 환영사, 김학용 국회농수산식품위원회 의원의 축사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의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과 실천방안,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의 식품가격 상승 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의 주제강연으로 진행됐고,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을 들어보는 종합토론을 통해 물



가안정 및 안전식품과 가격상승 요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광역시지부

'2011 전국주부교실 부산지도자대회' 개최

시지부(회장 김기묘)에서는 지난 6월 9일 롯데백화점 문화홀에서 회원 및 내외귀빈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성의 힘'이라는 주제로 '2011 전국주부교실 부산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16개 구·군 지회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친화적인 축산물 확보를 소비자 결의대회를 펼쳤으며, 장혁표 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의 나눔과 배려에 대한 강의, 정호영 전국한우협회 부산

경남도회장의 환경친화적 축산물과 우리 축산물의 안정성, 우수성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폐 의약품 관련 교육

지난 7월 12일 본회 강의실에서 회원 63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방치된 의약품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폐의약품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사용가능한 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불용 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폐기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

대구광역시지부

<2011 전국주부교실 대구지부 지도자대회>개최

시지부(회장 손기순)에서는 지난 7월 8일 대구은행 본점 지하강당에서 임원 및 회원, 내외귀빈 1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전국주부교실 대구지부 지도자대회>를 개최해 축산물 안전성 교육 및 한우홍보교육 및 시식회를 열었으며 21세기 여성이 가져야 할 역량에 대한 주부로

서 회원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성매매방지 캠페인

지난 7월 2일, 8일, 15일, 22일, 29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범어로타리, 명덕로타리, 두류공원, 228공원에서 회원 23명과 함께 제 16회 여성주간행사를 맞이해 성매매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NO! 성매매 STOP! 성구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매매 방지 홍보캠페인 및 서명부스를 운영했다.



에너지 절약 범시민대상 캠페인

지난 7월 22일 반월당네거리 교통섬에서 회원 27명이 함께 대구광역시와 에너지관리공단 대경지역센터 등과 함께 '여름철 적절 실내온도 26

도 이상을 지킵시다'와 '60~80km/h의 경제속도로 최고의 연비를 유지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피크전력 시간대의 절감운동, 차량의 경제속도 유지, 적정실내온도 유지하기 등 범시민 대상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농·축산물 원산지 홍보

지난 7월 28일, 29일 대구지역 전통시장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 46명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설명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인천광역시지부

문화체험 '인천사랑 우리가 지키자' 개최

시지부(회장 한혜자)에서는 지난 6월 11일 시민 90여명과 함께 환경교육 및 애항심을 고취시키고자 인천시 강화 역사박물관 및 고인돌, 어린이과학박물관을 견학하는 '인

천사랑 우리가 지키자' 행사를 개최했다. 또 6월 25일은 회원 90명이 가스과학관, 에너지파크를 방문해 생활속에서 가스의 필요성과 에너지의 생성방법 등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인천을 녹색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녹색 소비활동에 대해 교육해 환경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소비자교육

지난 7월 5일 관교동 노인 경로당에서 노인 26명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건강기능식품방문판매 등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노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고, 7월 14일~15일 송월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컴퓨터 게임을 통한 피해 사례 및 대처 방법과 인터넷 쇼핑 등의 피해사례를 들어 청소년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지부

원산지표시 캠페인

시지부(회장 박영희)에서는 지난 7월 4일 회원 11명은 부구 각하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 및 감

시가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이끌 수 있음을 홍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낭비 없는 음식문화 실천교육 및 캠페인

지난 7월 4일 북구 각하아파트단지에서 회원 11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한 종량제 ‘나부터 실천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캠페인을 실시했고, 14일 북구 노인대학 2층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음식폐기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종량제 제도를 소개해 가정에서 줄이는 것이 환경에 가장 도움이 됨을 재차 강조했다.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전시회

지난 7월 26일 유스퀘어 유스토리에서 회원 8명이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홍보를 위해 패널 전시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대전광역시지부

<대중교통이용 및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 교육

시지부(회장 송병희)에서는 지난 7월 7일 대전주부교실2층 강당에서 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노기수 대전광역시 대중교통과 버스지원담당 사무관이 강사로 자리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의 투명성과 잔돈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카드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활성화를 유도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 방안> 교육

지난 7월 7일 대전주부교실 2층 강당에서 주부교실회원 80명을 대상으로 김학성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 충남지원장을 초빙해 축산물 등급제와 좋은 축산물 고르는 방법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가격안정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제 20기 주부교실 모자캠프

지난 7월 28일~29일(1박2일) 대전교육연수원에서 회원 및 자녀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0회 주부교실 모자캠프>를 개최했다. 모자가 함께 사랑의 성 쌓기 놀이, 창작 율동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울산광역시지부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환경보호 캠페인

시지부(회장 박보봉)에서는 지난 7월 15일 울산대공원과 진해해수욕장에서 회원 및 자전거 동호회 회원 70여명이 모여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자전거를 직접타고 자전거타기 생활화가 교통정체 해소 및 대기오염 완화, 건강증진, 에너지 절약 등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음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유도했다.



소비자교육

지난 7월 4일 남목 미포복지관에서 결혼이민자여성 22명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다단계, 할부거래 청약철회 방법 등 건강기능식품 구입요령, 신용카드 사용법 및 주의할 점을 홍보하며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

방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어르신이 함께 하는 행복나들이

지난 7월 12일 독거노인 50여명을 모시고 ‘어르신이 함께하는 행복나들이’를 개최해 현대중공업, 회야정수장, 명선교를 견학했고, 점심식사로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환경탐사대 및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 활동

지난 7월 19일 청소년 환경탐사대 및 환경지킴이 봉사단 82명이 회야정수장 및 아나올장애인작업장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환경사랑 의식제고 및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견학 및 봉사활동을 실시 후 진해해수욕장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해, 환경사랑 의식 제고 및 실천에 앞장섰다.



경기도지부

전통식품인증제 거리전시회

도지부(회장 박명자)에서는 지난 7월 20일 롯데마트 천천점 입구에서 모니터 6명이 시민들에게 전통식품 품질 인증제 및 우수성을 알리고자 패널 전시 및 전단지 배부하며 거리전시회를 전개했다.

우리 축산물 안전성 홍보 및 홍보 소비촉진 전시회

지난 7월 19일~20일 롯데마트 천천점 인근상가 및 정자시장에서 모니터 8명이 우리축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려 소비촉진을 유도하고자 홍보활동을 전개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시민들에게 동참을 유도했다.



소비자피해 예방법 특강 및 봉사활동

구리시지회(회장 정 순)에서는 7

월 5일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리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 예방을 위해 마지막 교육인 8회차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고, 이후 수료식을 실시했다.

또 지난 7월 11일 회원 10명은 토평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무료급식 반찬을 만들어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전개했고, 18일에는 회원 15명과 구리역에서 여름철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절약캠페인'을 전개했다.



경기농특산물 안전성과 우수성교육

남양주시지회(회장 박순자)에서는 지난 7월 5일 회원 50명이 오납읍 은천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경기 농특산물을 알리며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교육

수원시지회(회장 권순자)에서는 7월 4일 수원시 가족 여성문화회관·문화관에서 일반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소비자원 연구원을 초빙해 소셜커머스에 관한 법규 및 상담사례 피해사례 등 소비자 피해사례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봉사활동 및 캠페인

부천시지회(회장 안현숙)에서는 지난 7월 5일 부천시청에서 부천시 주부교실 회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호루라기를 이용하면 '성폭력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호신용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힘썼다.



성남시지회(회장 강용선) 회원 10명은 지난 7월 6일과 12일에 상대원 2동과 상대원 1동 복지관을 방문해 중식제공 및 청소 봉사를 실시했다.



안양시지회(회장 장도희) 지난 7월 4일과 7월 12일에 각각 호계 노인복지관, 동안 노인복지관에서 조리보조 및 배식 설거지 봉사를, 21일에는 회원 25명이 비산동 평화보육원에서 원생들에게 중식으로 김밥제공 봉사활동을 펼쳤다.

오산시지회(회장 장춘화)에서는 지난 7월 18일 농산물 명예감시원 12명이 오산시 재래시장에서 물가안정 및 농산물 안전관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파주시지회(회장 김순자)에서는 지난 7월 15일 회원 7명이 파주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중식배식 및 설거지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19일에는 회원 8명이 봉일천 초등학교 주변에서 깨끗한 파주시 주변 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평택시지회(회장 정희주)는 지난 7월 29일 회원 2명이 송탄파출소에서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민원안내 봉사활동을 펼쳤다.

여주군지회(회장 권영림)에서는

지난 7월 4일과 18일에 회원 5명이 여주군 노인복지회에서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지난 7월 20일 농산물 명예감시원 10명이 여주군 제일시장, 세종상가 앞, 터미널에서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 홍보전단지 배포하며 관련제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강원도지부

전통식품품질인증제 전시회

도지부(회장 이경순)에서는 지난 7월 27일 춘천역 광장에서 전통식품인증제 바로 알기 전시회를 개최했다. 생산자에게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려 올바른 먹거리를 위한 소비촉진을 유도했다.

우리 축산물 안전성 홍보 및 소비촉진 전시회

지난 7월 27일 춘천역광장에서 강

원도민을 대상으로 우리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 인식제고를 위해 전시회를 열어 홍보물 전시 및 팸플릿을 나눠주며 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취급 요령, 좋은 고기 고르는 요령 등 관련 정보제공 등으로 우리 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애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봉사활동 및 캠페인

태백시지회(회장 오영희)에서는 지난 7월 5일, 6일, 7일, 20일, 21일 회원 5명이 태백노인전문요양원과 장성병원, 장애인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봉사를 실시했고, 지난 7월 4일 회원 6명이 장성동 일원에서 '구명조끼 착용! 물놀이 안전의 시작'인



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를 줄이기위해 가두 캠페인을 개최했다.

양구군지회(회장 최경지)에서는 7월 15일 회원 12명이 인제 '안나의 집'에 방문해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평창군지회(회장 엄순자)에서는 7월 2일 평창군 약수리 도로변 화단에서 회원 7명이 아름다운 평창의 이미지를 위해 화단의 잡초 뽑기, 흘러내린 토사치우기, 화단 주변 잡초 정리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횡성군지회(회장 엄순자)에서는 회원 5명이 7월 매주 수요일 횡성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목욕봉사를 실시했다.



충청북도지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회참여 특강 및 유망직종 창업설명회

도지부(회장 최광옥)에서는 지난 7월 6일 청주시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결혼이나

임신으로 경력단절상태에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회참여 특강 및 유망직종 창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류경희 강사와 김은미 강사를 초빙해 정보제공특강을 실시했고 이후 직업상담사를 초빙해 성격과 적성검사를 통한 상담으로 구직여성들이 원활한 구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진천군지회(회장 최경옥)에서는 지난 6월 13일 회원 20명은 예원한정식 식당에서 어르신 2명의 생신상을 차려 드리며 쓸쓸한 노년의 삶을 위로해 드렸다.



자연보호 캠페인

옥천군지회(회장 유재숙)에서는 지난 6월 9일 옥천 죽향리 마성산에서 회원 20명과 함께 '자연은 우리의 미래, 산과 강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과 쓰레기줍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충청남도지부

주부대상 전통식품인증제 홍보 교육

도지부(회장 조춘자)에서는 지난 7월 26일 충남통일관에서 주부 및 소비자단체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주부대상 전통식품 인증제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박상우 농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전통식품 품질 인증마크 및 종류, 제도의 필요성 등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알려 올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2011 전국주부교실 충남 지도자대회 개최

지난 6월 8일 충남통일관에서 '나눔과 배려하는 사회, 그리고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성의 힘'이라는 주제로 전국주부교실 충남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회원 및 내외귀빈 149명이 참석한 이번 지도자대회는 우리 쌀의 우수성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교육, 방송통신 교육을 비롯해 물가안정 및 경제교육 및 충남여성 노인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독려했다.



'1가정 쌀가루 1포 갖기 운동' 전개

지난 6월~7월간 충남 16개 시·



군에서 회원 160명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1가정 쌀가루 1포 갖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해 쌀가루와 부채를 배부하며 우리 쌀의 우수성 및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유도했다.

생활 속 탄소절감 캠페인

지난 6월~7월간 충남 16개 시·군에서 회원 270명이 여성과 청소년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문구가 새겨진 쟁반을 배부하며 생활 속 탄소절감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회장 이·취임식

보령시지회(회장 황희자)에서는 지난 7월 13일 세영웨딩홀 회관에서 보령시지회 회장 이·취임식을 행사를 가졌다. 황희자 신임회장은 박미란 전임회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보령시 지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

연기군지회(회장 신옥순)는 지난 6월 26일 회원 14명이 관내 재래시장 인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 및 우리 농산물 애용하

기 피켓, 전단지 배부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믿음을, 생산자에게는 희망을 부여하며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라북도지부

어르신 소비자교육

도지부(회장 강정자)에서는 지난 7월 5일 하나대투증권 3층 교육장에서 취약계층인 어르신 59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에너지절약교육

지난 7월 5일 하나 대투증권 3층 교육장에서 주부 및 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주부 환경 지킴

이 교육을 통해 주부들이 지켜야 할 내용 등 에너지절약교육을 실시했다.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주부환경 캠페인

지난 7월 13일 세이브존에서 회원 30명이 모인 가운데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주부환경지킴이 캠페인을 전개해 도로에서 부채, 물휴지,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유도했고, 장수군지회(회장 양순옥)는 7월 15일 진안군 재래시장에서, 고창군지회(회장 전옥선)에서도 18일 고창전통시장에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군산시지회(회장 박희순)에서는 지난 7월 27일 회원 30명이 군산역에서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고, 김제시지회(회장 문순희)에서는 지난 7월 1일 김제시 평강의

집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익산시지회(회장 김채숙)에서는 지난 6월 4일 익산시 중앙체육공원에서 회원 10명이 자활센터와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돕기의 일환인 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에 참여해 약 90세대에 김치를 전달했다.



정읍시지회(회장 김순자)에서는 지난 7월 8일 회원 6명이 정읍시 여성회관에서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반찬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고창군지회(회장 전옥선)에서는 7월 1일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에서 부족한 일손을 돕고, 오디와 복분자 따기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6월 12일 회원 12명이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보은의 집'에서 청보리 축제장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료나눠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완주군지회(회장 안춘자)에서는 지난 7월 8일, 15일 완주군 삼례읍 사무소에서 회원 5명이 어르신들 대

상으로 귀반사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독거노인 2세대에게는 도배 봉사활동을 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렸다.

전라남도지부

결혼이민자 소비자교육

도지부(회장 이승자)에서는 지난 7월 13일 화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여성 51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문제와 피해 해결방법 등을 교육했고, 14일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부 및 회원 58명을 대상으로 주부들의 대체적인 소비자 피해유형을 소개하고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교육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및 캠페인

지난 7월 18일 나주종합사회복지관과 남고문 일대에서 회원 154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심각성을 인식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이

옥 화순군 소비생활센터 전문강사를 초빙해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을 실시했고, '저탄소 녹색생활 우리가 앞장서자'를 주제로 교육과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 및 정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물가안정캠페인

지난 7월 19일 나주 남고문일대에서 회원 53명은 물가안정 및 원산지 표시, 판매가격 표시 정착 등 합리적인 소비습관 확립을 위해 서민경제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녹색지구인 창작·개사곡 경연대회

지난 6월 25일 KBS목포방송국에서 회원 및 어린이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의 날을 기념해 <녹색지구인 개사곡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후변화, 녹색생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창작곡 및 개사곡, 자유곡으로 경연을 펼쳐 24팀, 3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

고, 이후 저탄소녹색성장 전시회 개최, 탄소 줄이기 도민 서약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봉사활동

강진군지회(회장 위수진)에서는 지난 7월 16일, 25일 강진종합운동장과 남포구장에서 회원 21명이 클럽축구와 럭비경기 선수들 및 관람객들을 위해 무료음료봉사 및 경기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장내 정리봉사활동을 실시했고, 완도군지회(회장 정혜덕)에서는 피서객들을 위해 7월 23일~31일 회원 45명이 완도군 일대에서 피서객들의 교통안내 및 음식점 안내 등 불편함 없이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관광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지부

녹색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도지부(회장 이인호)에서는 지난

6월 22일, 28일 경북 영주시 새마을회관, 칠곡신협에서 회원 약 30명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이후 영주 중앙시장과 칠곡 왜관역 광장에서 '녹색소비를 위한 생활습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지난 6월 16일 구미시 송정동 일대에서 구미 시민 30명이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으로 물가 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유도했다.

봉사활동 및 장학금 전달

경주시지회(회장 박추자) 회원 6명은 지난 6월 6일 황성공원 충원탑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음료제공 및 주변 정화활동을 전개했고, 13일 경주시 경동면에서 회원 4명이 장애인 축구대회에 참여해 응원 및 간식을 제공했다.

또 16일 경주시 온정마을에 회원 3명이 방문해 음식을 제공하고 주변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구미시지회(회장 손창순) 회원 11명은 지난 6월 3일 어르신들의 전당에서 중식제공 봉사활동과 시설 내 청소봉사를 실시했고, 상주시지회(회장 육순단) 회원 2명은 상주시 사벌면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인 '희망세상'에 방문해 미용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주시지회(회장 김시영)에서는 지난 6월 14일 순흥초등학교의 모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고, 15일 하망성당 만남의 집에 회원 9명이 방문해 중식제공 및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 23일 회원 10명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보현마을에 방문해 식사도우미와 말벗이 되어드려 쓸쓸한 노년의

삶을 위로해 드렸다.

영천시지회(회장 이길자) 회원 3명은 분교 노인시설 자광원에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고, 포항시지회(회장 남순례)에서는 6월 매주 월요일 포항시 북구 학산동 영세민 주공 아파트에 방문해 회원 34명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독거노인들에게 식사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고령군지회(회장 양혜숙)은 22일, 29일 회원 5명이 대창양로원에 방문해 목욕봉사와 말벗이 되어 드려 쓸쓸한 노년의 삶을 위로해 드렸다. 봉화군지회(회장 이우정) 회원 5명은 6월 21일~22일 봉화 군민회관을 방문해 장애인의 날 행사 도우미 및 음식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30일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해 청소 및 세탁, 밑반찬을 만들어 드렸다.

영양군지회(회장 최계숙)에서는 6월 매주 목요일 영양군 내 독거노인 6가정에 반찬을 조리해 배달봉사활동을 했고, 울릉군지회(회장 최윤정)에서는 지난 6월 14일 울릉군 교동 3리 한마음회관에 반찬을 조리해 제공했다.

울진군지회(회장 김희자) 회원 15명은 6월 10일~13일 경북도민체전 행사기간 내내 행사장 일대 교통지

도와 무료 음료제공, 안내 도우미 봉사를 실시했다.

경상남도지부

제 31기 주부대학생 창원대학교 특강

도지부(회장 김점숙)에서는 지난 7월 12일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주부대학교 창원대학교 1일 유학해 이찬규 창원대학교 총장이 강사로 자리해 자녀교육 특강을 해주셨다.

우리축산물 가공현장 방문

지난 7월 26일 회원 45명이 김해 축산물 공판장에 방문해 친환경 우리 축산물의 가공현장을 둘러보고 우수성을 확인해 직거래를 통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자연학습 및 수학여행

지난 7월 21일 회원 125명을 대상으로 자연학습 및 환경정화 활동과 여성의 인재발굴을 위해 자연학습

및 수학여행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장기자랑을 하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돈독한 시간을 보냈다.

주부대상 전통식품인증제 홍보 교육

7월 19일 경남지부 강당에서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유옥영 GMO강사를 초빙해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홍보 및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우수성을 알려 농업의 발전을 도모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

통합창원시 마산지회(회장 이수련)에서는 지난 6월 28일 경상남도지부 강당에서 회원 220명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권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이후 하나방송 앞과 가야상사 앞에서 '출산장려 권장하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전개해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앞장섰다.



봉사활동
산청군지회(회장 성금순)에서는 지난 7월 6일 산청노인 전문요양원, 20일 성묘요양원을 각각 방문해 목욕봉사 및 말벗이 되어드렸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장바구니 물가조사

도지부(회장 김영희)에서는 매주 화요일 물가모니터 5명이 물가안정 및 소비자물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도내 중대형매장 및 재래시장 14개 업소에서 기초생필품 7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농교류사업 전개
지난 7월 27일 제주도내 여성 45명을 대상으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소재의 '다희연'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의 가치인식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한 도농교류사업을 전개해 친환경재배 녹차 따기 및 녹차 장아찌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우리축산물 가공현장 방문

지난 7월 28일 주부 45명과 함께 영농조합법인 동원에 방문해 친환경으로 가공되는 계육에 대한 현장견학을 통해 소비자로서의 감시자 역할과 친환경적으로 가공되는 계

육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렸다.

주부소비자대학 수료식
서귀포시지회(회장 문춘희)에서는 7월 22일 5주간 진행됐던 주부소비자대학의 수료식을 열어 총 5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봉사활동
대정읍분회(회장 고인자)에서는 지난 7월 16일 대정체육관에서 서귀포경찰서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과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사회형성을 목적으로 이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원동기면허 시험관련 교육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 광주광역시 지부 박영희 회장 여성주간 유공 시민 시장상 수상
박영희 광주광역시 회장은 지난 7월 7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여성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주간 유공시민 시장상'을 수상했다.

◆ 경남 통합창원시 창원지회 윤지순 회장 도지사 표창 수상
윤지순 통합창원시 창원지회 회장은 7월 5일 도청별관 도민홀에서 열린 경상남도 여성주간기념행사에서 여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유공자 경남도지사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주부교실게시판

■ 제77기 주부대학 수료식 및 제78기 주부대학 수강생 모집

본회가 1977년부터 주부들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부대학이 지금까지 총 77기를 걸쳐 9,1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77기 주부대학이 9월 23일(금) 수료식을 갖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7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개강일 : 2011년 10월 5일(수) 10:30
- 장 소 : 본회 3층 강당
- 접수 및 문의 : (02)2265-0637, 3628

■ 의류 및 세탁물 피해 상담 및 구제

본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와 업체간 의류 및 세탁물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의류심의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발생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해 소비자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매주 화요일 9:30~17:3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또는 쿼서비스 이용(지방에 한해 택배 가능)
(세탁접수·처리부)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첨부
- 접수문의 : (02) 2265-5870, 2273-6300, 2485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 제18기 주부대학원 모집

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부대학 과정을 좀 더 심도있게 다루는 '제18기 주부대학원'이 다음과 같이 개강합니다. 주부대학 수료생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1년 10월 20일(목) 10:30
- 장 소 : 본회 3층 강당
- 문 의 : (02) 2265~0637, 3628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중랑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
- 문 의 : (02)3409-1948~9

프로그램	개강일	교육기간	수강료
직업능력개발훈련			
베이비 마사지 지도사	9월 17일	1개월 토 (09:30~13:30)	70,000원
유기농 카페브런치 베이킹	9월 19일	3개월 월 (19:00~22:00)	200,000원
국비지원과정			
다문화가정 자국민 산모 헬퍼	9월 19일	3개월 화, 목, 금 (09:30~13:00)	무료
컴퓨터활용능력 2급	9월 2일	1개월 월, 수, 금 (14:00~17:00)	36,000원

“부패 없는 청렴사회, 건강보험이 함께 합니다”

hi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생활습관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암검진
국내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생애전환기인 만 40세, 만 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 및 건강위험 평가(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성치매, 암 등)와 생활습관 평가, 의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체결수기

암검진
체결수기

“QR 코드를 이용해 건강검진
체결수기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well
국민건강보험



박정현의 '선데이 브런치'
Full Song을 들어보세요.

CJ CHEILJEDANG

오래 전에도 지금도, **고향의맛**



그래, 이맛이야!
다시다

박정현의 노래처럼

신선한 감동이 필요하세요?

좋은 노래에 박수를 보내는 건,
신선한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주스도 신선한 감동을 주는 주스가 있습니다



1등 냉장유통주스, 아침에주스가
신선한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주문신청 및 고객센터 : 080-021-5656(수신자 부담)



(조리예)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한울

보이는 기미만 밝히세요?
피부 속 숨은 기미까지 밝히세요

보이는 기미부터 숨은 기미까지
한울 고결 미백 에센스

기미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보이는 기미부터 속에서 자라는 기미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한울 고결 미백 에센스는 정체된 피부 속 순환을 회복시키고 기미 생성 환경을 개선하여 이미 올라온 기미는 물론 피부 속 잠재 기미까지 동시에 밝힙니다. 깊은 다스림 - 한울



NEW
미백기능성인종
식품의약품안전청



My Favorite Beauty Shop
ARITAUM
www.aritaum.com

•한울은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한방화장품입니다
•아리따움에서 한울을 만나세요 •고객상담실 080-023-5454 www.hannule.com